



동부전선 제7중단 군사위원 천을노장

경력 :

본명 - 천유리 알렉산드로비치, 1914년 4월 29일
원동평강 연해주 벨리예프 구역 향촌이 부르시촌 빈농민의 가정
에서 태어나났다. 1931년에 향촌소학교에 입학하여 19
28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1930년 봄에 1931년 까지
아버지를 돕아 향촌에서 농업을 종사하였다. 1931년 가을
에 연해주 벨리예프 구역 블라야농가 촌에 있는 초중예

입학하여 3년만에 즉 1933년에 그 초급을 필하였다.
1933년 9월에는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에 있는 한인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1937년에 우수리스크 사건을
나온다음 원동변방 교육국의 파견에 따라 우수리스크 야곱
테브 구역 비파고르논 인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였다.

원동으로 불어 한인들을 전방적으로 강제이주함과 관련하여
1937년 11월에 부르비크 공화국 다슈켄트주 공산당 구역
거리부논에 도착하여 제복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였다.
원울 선생은 강제이주후 생활행편이 채안착되지 못한 조
전하에서도 제복교원으로 계시면서 1939년 여름에 다슈켄
트 시내의 영심 사범대학 통신학부 력사학과에 입학하여
1944년 하기에 졸업하고 국가 검정시험을 주관 중학교 력사
교원이란 국가 직위 영칭을 수여받았다. 원울 선생은 1945년
10월까지 고등중학교의 위선있는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주군
사동위원의 명령에 따라 동년 10월말에 원동변방 제
25군단 관할하에 도착하여 11월 1일부터 쓰린군 홍역
관을 복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이후 1945년 11월 부터 25군단 1진전사
령부 클라넨기 관할하에서 북반 산업기업도 국유화공사 하였고
1946년 4월부터 - 1948년 8월 31까지 조선인민군 공사, 1진단
홍역관을 일하였는데, 당시 군사칭호는 대위였다.

1948년 9월 1일 - 1949년 5월 1일까지, 동진군 항공 교도련
대 홍역관, 군사칭호 - 소좌;

1949년 5월 2일 - 1950년 10월 1일 빈족보위성 문화출판
국 선전선동부장 - 군사칭호 중좌;

1950년 10월 2일 - 1951년 10월 5일 동해군사령부 평동
부국장 - 군사 칭호 - 대좌;

1951년 10월 6일 - 1952년 10월 18일 - 항공사령부 기술

사단 정치부장, 군사청보 대좌 ;

1952년 10월 20일 - 1954년 10월 20일 까지 조선인민군

선봉사 책임주필, 군사청보 대좌 ;

1954년 10월 21일 부터 인민군 동북전선 제 7군단 군사
위원 - 군사 청보 소장.

천을 선생은 1939년에 권령병 레닌공산청년회 회원으로 입당
하였으며, 1944년에는 레닌공산청년회 보증을받아 전령병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천을 선생의 복음들은 1930년 까지는 자기 경작지를 소유했던
물론 빈농이었다며 그후 소련공산당의 단합화 정책에 따라 끌려
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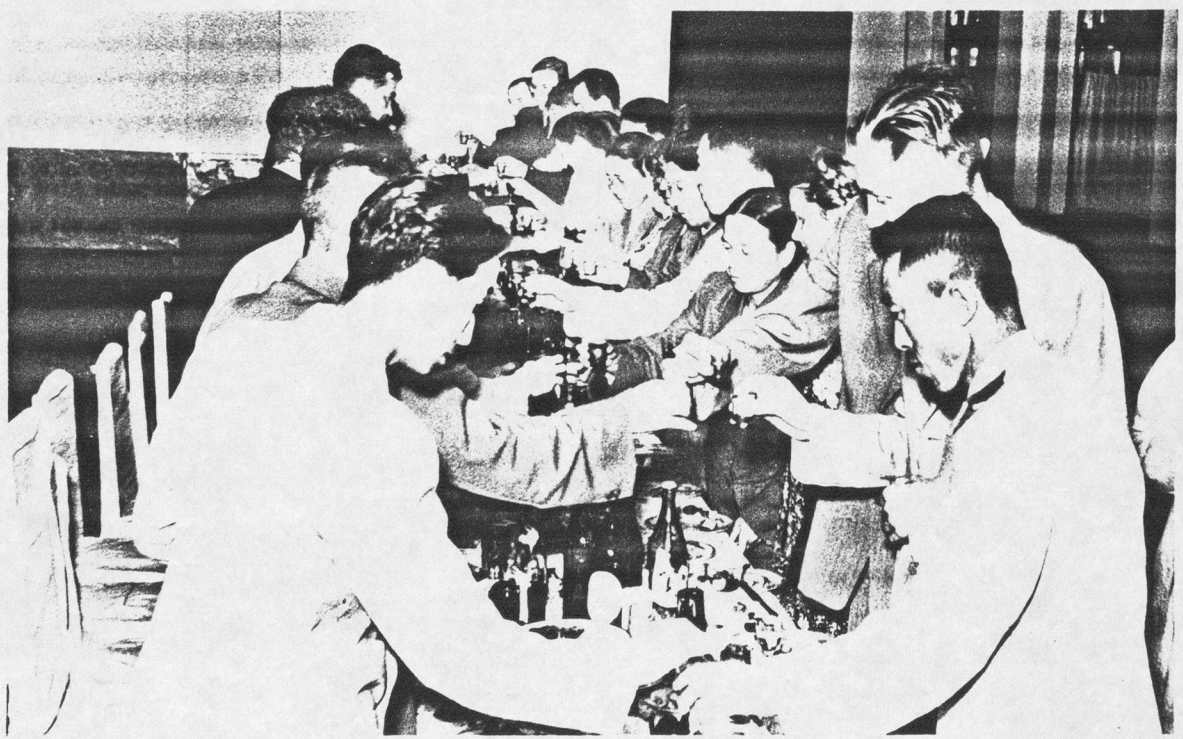
사상검토 :

천을 선생은 조선인민군대를 조직한 간부중의 한사람이었다. 천을
선생의 기본 특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꾸준히 실천
하는데 밝기며, 남을 잘 이해하고, 동정하여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를
알고 계신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을 선생은 법이 없어 살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경력에서도 낮지만 12년 상등의 길을
발전하고 있었다.

인민군대내 가장중대한, 군인들의 사상 동향을 좌우하는 "조선인민군
선봉사 책임주필 직무를 지내었다는 것은 상부에 얼마만한 신임을
받고 말하였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것이었다. 당시 민족보위
상으로 있던 김광봉 상장을 천을 선생을 아주 신임하고 발전성
있는 간부로 인정하고 소련 군사아카데미에 공부하러 가시라고
무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겸손한 천을 선생은 당시 복잡한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군사대학은 세계 정세가 좀 완화된 조건하에
서 나을 예상하시고 때면 사양하시었다.

1954년 9월에 전 7군단 군사위원으로 있던 리충백 소장의 인
원복화 조건으로 인민군대 군사위원 직부에서 철적, 제대 당파자 그
직부에 최고사령관은 천을 선생을 후대하였다. 그에 따라 그의

군사 칭호로 대좌로 붙여 노장으로 응접하였다. 당시 군단장 직책에는
별다른 출신 전문업 노장이 없었다. 7군단이 라는 연합부대는
연변군대의 전반적 후회적 동맹주 사형시에서 예비군들을 물려
조직한 군사훈련 부대에 있는 예비병력이었다. 1951년 4월에
조선 땅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강원도 석왕사 같은 삼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전후 훈련은 하였으나, 전련부대들이 전후다 진지
전에 좌절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후에는 원변로 참가하려 못하였다.
당시 군단 일부는 강원도 여포에 위치하고 있었다.



1953년 8.8 부녀절을 계기로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조직
한 노동대연회에 참가한 천훈성생, 천선생이던 다음 노련
고문 부부와, 박경애 김일성 등 차례로 서 있다.

1958년이 당전화과 연변군대내 사상통일이란 완전히 와
해된 형편이었다. 각개 고급관들이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는 사
상 동향은 일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벌써 4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상검토 운동은 김일성의 기대와 정반대로 군대내 어느정도
보여 주어져 있던 사상적 통일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군관들이 상호
상대방을 적으로 보며, 어떻게 하던 하인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살아 갈수 있다는 것과, 될수없는 대로 남의 허물을 신속히 발견

하여 상부에 급속히 밀고해야 신임을 얻을수 있다는 정신으로 살고
 있는 때였다. 인민군대내에서 김일성 화에게 제일큰 위행으로
 보이던 중국 영안파는 완전히 소멸되고 소련 파도 끝장을 보는판
 이였다.

천돌선생은 천생남에게 악한일이라고는 해본적이 없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돕어주고 하면서 피난대까지 살아왔지만 현정세
 가 돌아가는것을 살펴보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겠다는것을
 차츰 현식하게 되였다. 특히나 자기와 가장 다정하던 동북전선
 군사위원 김철두, 2군단 군사위원 김항원 등 동무들이 반당 공파분과
 로 설직, 출당된것을 보고 자기도 그들과 같이 예를 배우게 되였으며
 어떤 예방대책에 대하여 생각하려 하지할수 없게 되였다.

하루는 천돌선생이 자기부인 채양나를 시켜 평양에가 다녀오라고
 하였다. 천선생이 부인에게 당부한말은 평양에가서 따직 남아 있는
 몇몇 소련간부들의 동향을 잘아라보라는것과, 자기 친동생 천이완을
 찾아가서 소련으로 돌아갈 유혹을 하지 않겠는가? 그 물어보라하듯
 친동생 천이완은 당시 동병사령부 병기총국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채양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시킨대로 "돌아갈 유혹네" 대한 말을
 천이완에게 전하니 천이완은 그 말에 별걱 밀어서면, 말하기를 - 이게
 어떤 시리라고 내가 최고사령관께 그런 제의를 하였다가, 거저
 가지로 오지도 못하고 목이 찢어질수 없으니 까딱 생각도 하고
 말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였다. 천이완이 그렇게
 말하게 된것은 기대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약 반년전에 민족
 보위상 김창봉이 모스크바로 출장가면서 가장 신임할수없는
 사람으로서 천이완을 데리고 동행하였다. 김창봉 보위상은
 서북전선 전선부대 혹은 연립부대 등에서 사관장, 군단장 직
 무에서 오래동안 있었으나, 민족보위성 범위에서는 천이완
 소장에게서 물어바야 할 문제들이 많았으며, 조어나, 군사학 및 병
 기 부문에 있어서는 들도 없었고 물어였다. 보위상이 천이완을 신

6.
임하게 된 것은 인민군대 조직총시불어 천을선생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친동생이 아무리 반대하였다 할지라도 시대
의 경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무심박테이 안마 없기
란 논공방석에 올라앉은 격이었다 때문에 천을선생은 또 다시 북
인을 평양에 보내리, 이번에는 "물리학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결심"을 전하며, 부분적 물건유혹도 시작하리서였다. 그 내용은, 자기
는 아이들을 소련에 살고있는 둘째동생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소련 대사관에서 그것을 유혹한다든것으로 전하였다. 이렇게 천을
선생 양쪽은 결심하기를, 자기를 북쪽은 소련에 가지 못하면 조선에서
죽는 한이 없으리란 아이들은 자유로울 소련 땅에 가서 잘라온 공복나
만것하고 살라는 것이였다. 채 안나 나모님은 결심한대로 1959
년 허가 발급처기를 리용하여 아들 형제, 딸 총합계 5명으로
데리온 모스크바를 거쳐 하뉴켄토시에 도착하였다.

조선 북남에 낫말은 새가 나르니, 밤말은 쥐가 나르니, 7군단
군사위원 천을노장이 자기 아이들을 돌려보내어 1년여 소련에 보
냈다는 소문이 당중앙에까지 전달되자 중앙당 사상검토 지로부는
유명한 반노분과 김형안 의지시에 따라 제 7군단 간부들이 사상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군사위원 천을노장이나
상검토가 시작되었다. 7군단 지휘부 초급당단체 사상검토
당회를 정식시작한다고 선포한다음 12일 기본 짚업어후 13
4시 불어 시작하여 저녁 8시까지. 그 당회의를 반부하로 되어였다

사상검토 당회의에서 첫날부터 천을군사위원에게 질문하
서 솔직히 실노하라고 권고한 문제는 생전 상상도 하지 않던
데 없는 폭동준비 지시를 하부에서 주었다는 물레와 왜 아이들을 소련
에 1년여 보내며 보내고 자기로 광화 도망갈 예산인가? 1959년
8월 10 일경에 군단사령관 정물성은 평양에 올라가고 군단
책임자로 천을군사위원이 임시 있을 때였다. 동북조선 사령부
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8.15 주간 경비를 강화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금번(今年)만 아니라 매 기년(每年) 경비(警備) 구간은, 1만여의 경위를 위하여, 배가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하부(下部) 각사단, 연대, 대대(大隊) 등에 있어서 경비(警備) 구간(區間) 사이에 경각성(警覺性)을 높여 전투(戰鬪) 준비(準備) 태세(態勢)를 경비를 강화(強化)하라고 지시(指示)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사진은 천을(天) 군사(軍事) 위원(委員) 동지(同志)가 중국(中國)으로 귀환(歸還)하고 있는 함의(咸) 원조(元助) 중국(中國) 지원(支援)군(軍) 련(連)합(合)부(部)대(隊)장(長)과 작(作)별(別) 연(演)사(事)를 하고 있는 환경(環境)이다.

중앙(中央)당(黨) 사상(思想)검(檢)査(査) 지도(指導)원(員)들은 북(北)한(韓) 중앙(中央)정(政)부(部)를 반대(反對)하기 위한 "폭(暴)동(動)" 지시(指示)를 각(各)사(師)단(團)에 주(注)었다고 생(生)집(集)합(合)을 결(決)고 매(每)일(日) 갖(持)어 자(自)복(復)화(化)하(하)는 것(것)이었다. 천(天)을(을) 선(先)생(生)은 매(每)일(日) 당(黨)회(會)의(의)가 개(開)회(會)되(되)면(면) 또(또) 다(다)시(시), 자(自)기(己)는 아무런 폭(暴)동(動)준(准)비(備)에 대(對)한 지(知)를 받(受)은 일(日)이 없(없)으며, 또(또) 하(下)부(部)에 다 폭(暴)동(動)준(准)비(備) 지(知)시(示)를 준(准)일(日)이 없(없)다고 말(言)하(言)였다. 거(거)서(서) 8.15 경(景)비(備) 구(區)간(間)에 특(特)별(別)경(警)비(備)를 강(強)화(化)하(하)라는 지(知)시(示)는 하(下)부(部)에 준(准)일(日)이 없(없)다고 하(言)였(였)으나, 중(中)央(央)당(黨) 지도(指導)원(員)들은, 아(아)예(예) 답(答)변(變)에 그(그)런(런) 말(言)은 끝(끝)이 들(들)는 것(것)처럼(처럼)도 안(安)하고 있(有)는 일(日)로 계속(계속)고 백(百)화(化)하(하)는 것(것)이었다. 이(이)렇게 약(約) 1주(周)일(日) 지(知)나(나)가(가)자(자), 적(敵)역(역) 용(用)사(事)가 되(되)면(면) 다(다)른(른) 단(團)원(員)들(들)은 전(全)부(部)다 집(集)에 가(加)게(게)하(하)고 천(天)선(先)생(生)은 적(敵)의(의)만(만)한(한) 동(洞)반(反)에 유(有)치(止)장(場)을 만(만)들(들)고 거(거)기(기)에

서 장밤동안 단 몇시간 휴식을 주고 계속 심문을하는것이였다. 밤을 자지 못하게 하기위하여서는 사상검도 지도원 21명이서 교대를 들어와서는 한 종이장을 주면서 자백서를 쓰라고 하고서는 또 다른 지도원이 들어와서도 또 다른 종이를 자백서를 쓰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다른 방에 나가 잠취다가 또 다시 들어오곤하였다. 이것은 필경에 잠을 자지 못하여 정신이 마취되면, 그 형포실에서라도 안한일을 할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천선생은 잠을 자지 못하여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안한일은 안하였던것이다. 천선생이 유치장에 갇혀있어 있다는 소문이 평양에 알려져서, 보위성 조행사령부 병기총국장으로 제신 천이와이 (천술의 천동생) 민족보위성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7군단 본부 강원도 여포시에 (연희차)를 자기 천병을 만나러 내려왔다. 동생은 형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물리고 단 한 마디만 물었다:

형님, 정말 그런 지시가 있었소? 하였다. 그에 형은 대답하기를 정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어떤 일로 메일 고백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라도 죽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동생은 그 말에 대답하여;

형님, 정말 똑똑 지시가 없었으면, 죽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하였다. 만약에 죽으면 죄가 없으니 고백하리 부끄러워 자살하겠다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동생, 나에게도 부탁으로, 전라북도, 친척들에게 전부다 부탁으로 되고, 그러나 절대로 주의해야 하려고, 하였다. 이 말을 눈물로 듣던 천선생은 마지막 말로 말하기를: 글씨 구려하고, 죽지 말라고 하니, 전대너무나 바빠해서 그치는거요, 하였다. 두 형제는 몇분동안 형의 유치장에서 면회하다가 동생 이완이로, 이밤에 비밀 녹음광채가 있을런지 몰라서, 형을 데리고 밖에서 나가서 몇마디 노골적인 이야기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상검도 지도원을 찾아가서, 형님의 건강이 아주위험한데 신성한공기나 좀마이도록 우리 정원에 나가

좀 알아 있게 하여 달고 빌었다. 이말에 사상검토 지도원은
보위상의 직접허가에 명회차로 내려온 장영동부의 도청에 거
절하였다가 무슨 처벌이나 받지않겠는가 생각하고, "얼리가 시지 말
고, 그러하면 후원에서 이야기 하시라고" 허락하였다.

정원 나무그늘 밑에 의자를 놓고 두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녹화하면서 동생 이완은 자기 형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형님! 그런데 그 폭동준비라는 말은 어디에 확실히 있기는
있는 모양이오? 없는 모양이오? 하였다. 그리고 자기 말을 게
녹화하면서, 나는 중앙에 앉아 있다가 보니, 여기 저기서 쓴 소문만
날려오는 것을 들을 뿐이지 뚝뚝한 것은 알수없거던요. 이말이
처음에는 서부전선 제 4군단에서 어떤 폭동준비가 있었다고
군단장 장영산, 군사위원 최학일 심문장 할것없어 몽땅 철적
검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먼저 당중앙의
지시로, 만약의 경우에, 남포에 적이상육하면 감서기계공공
로 동자들을 동원하여 무장하고 적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수천 훈련들을 조직 연습하고서는 그후에는 그것어 다 반당
종파분자들이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준비라고 결론하고, 군
대 간부를 여외제로 공장 간부로, 군당, 도당 간부를까지 철적 후퇴
하였으나 이것이 대간절 무능 일어오? 하였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말하기를, 하기는 여기서, 저기서 중앙을 반대하는 폭동준비를
하였다 하니 그놈의 중앙이 많하기는 특히 많하겠지만,
그런데 없는 적을 잡노라고 계속 더거리 가는 결심으로, 헛총
질만 하면서, 권실한 간부들을 애매하게 잡아넣고 못살게꾸는
모양이야.

이말을 들은 천을 선생은 - 있기는 무슨 폭동준비가 있었
다고, 그러는거요? 아무런 폭동준비도 없었소. 그저 노루가
제방구에 놀텐다고 그 동안 종파잡이, 반인민과잡이, 반당분
자 잡이를 하다보니 우두한 간부들은 다 청산하고 보나, 그외

면제를 맺고 있던 간부들이 무언을 꾸미거나 망설임이 없고 집을 먹고 불과 몇명만 남은 노간부들을 끝까지 향상하려는 수작업이 하였다.

천을 선생의 사모님 채안나 양은, 자기가 떠난 다음 남포천에게 불행이 닥쳐올것은 예견도하지 못하고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외국출장중인 가족들의 아이들이 살고있는 합숙에서 살면서 공부할수있는 수속을 밟아가고, 둘째 시동생을 찾아 다유겐츠에 도착하였다. 떠날 때에는 아이들을 시애키집에 데려다 주려간다고 하였지만 5명의 아이들도 장기간 친척의 집에 떨어져있는 형편이 살수가 없어서 합숙수속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신학기가 시작될때까지는 여섯끼구가 시애키집에서 살 예정이었다. 13년만에 다유겐츠에 돌아온 채안나 양은 만나볼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선 친정집과 친척들을 만나 보러 인사도 하는 동안 시간은 별다른 놀러 벌써 반달이 지나갔다. 채안나 아즈리니는 친정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13년간 그립던 이야기, 보고싶던 이야기, 아들이 성장하며 직업을 맡아주어 새집장이 거던 이야기와 함께 지난 13년간 변화된 조선의 정세에 따라 된 세는 세월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소련에서 파견되어 갔던 가정들이 다 매주는 귀한하고 없으며 많은 가족이 시대주들은 겹쳐놓도록 된 현재의 행방불명어란 이야기 등이 끈질기게 있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하루야워 심새 벅에 둘째 시애키가 직동사를 하고 자기 아즈리니를 찾아와서 평양에서 돌아온 전보문을 내어놓는 것이었다.

전보문 내용은 : < 형님 환영하십니까? 요사이엔 맞형님 몸이 좀 편치 않으니 아즈리니가 아이들은 떨어져두고 신숙히 집에 돌아와느면 좋겠습니다. - 천이화 >

전보문을 받아 켜 채안나 사모님은 심상치 않은 일이 집에서 생겼다고 예견하고 낙우하든 것이었다. 채 사모님은 ^{아이} 41명

아직 침상에 드러누워, 앙뚱 땀 류샤는 도록 업고 그날로 다뉴
 쉼호를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업국수속을 한다음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해시모님은 평양
 공화에서 작은 시애기 부부를 만나 천이완이 편회하려 강원도
 어포에 갔던 이야기, 또 노련과 누구누구는 사삼검초에결여 지름
 애를 해유인 엮다는 등 이야기를 듣고, 평양에서의 하루 동안 휴식도 허리
 앓고 그날저녁으로 어포로 출발하였다. 동쪽 상관이 휴전된후 산
 하게 된 총각이지만 장 5년간이나 생계를 유지한 그그강이
 밑고사는 정든 죽원이 있을때에는 외롭지 않던것이 아침에 역전
 에 도착하여도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 외롭기란 더 할
 할바 없었다. 이런감으면, 천을선생은 일이 복잡하여 못나온다
 할지라도, 부관과 유전후는 꼭 나와서 집이나 받아주었으리라는
 역전 좌우를 살펴보아도 자기를 기다리고 맞아주는 사람을 한
 나 없었다. 그 길로 집에 찾아가니 집에는 잠을외가 잠기워
 있고, 이웃집 아크머니가 말하느화에 의하면, 열대는 사삼검
 초지로 원어 갔고있다고 하였다. 무겁게 들고온 각종 음식 주머니들
 집 정문앞에 내려놓은 열대찾으러 금단분부류가게되었다. 열
 대를 찾느김에 사삼검초 지도원에게 천을선생과의 1경회를허
 하여줄것을 요청하나 날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하고 저녁
 8시 이후에 잠시만갈수 있다고 하였다. 집에 도라와 들을열
 고 가지고 온 짐들로 드러놓은 방안의 경험을 살펴보니, 무은놈
 의 난당판언지 갈래를 잡을수없게되었다. 해 안나 사모
 님은 이것어 전부다 사삼검초 지로 자의 농씨라는 것을 짐작하
 고 농생각으로, 너이들이 자기를꺼리 안대로 수색하였으니, 너
 리 살림사리 내각이 험백하라는것은 알게 되었을것이다.
 하고 한편인 자기를 안심 식히면서, 다른포인브른는 이런
 까리로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을 무의대물에 적대시하고, 가행수
 색까지 하면서 어야 단편지도러히 알수가 없었다. 해 안나 사모

18.1
그 자리 구들바닥에 주저앉아 서레 저녁불이 끓어오르나 배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한시급히 꼭 만나야 할 상봉의 시간은 이
제로 10시가량 기다려야 하겠으니 하고, 애 태우는 생각으로
한없이 느끼며 울었다. 물다가 기진맥진한 몸이라, 벌써
일주일간 특발티우는 근심반하면서 다슈케논에서 출발한후 제때
에 석리로 자지로 못한 연약한 녀자의 몸이라 그 울던 구들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벌써 오후 2시가 되어 간
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천정어머니처럼 지내던 짜릿 짐이
머리가 들어왔다. 근관 부인들은 모두 다 친척처럼 다니던 것이 누
구 한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윽할러니 알뜰에 의하
면 이웃집 근관 부인들이 문밖까지 들어올 심각은 제다다 잊지
만 사상검은 당회이며 밀고달기라 두려워서 못들어 오고있다
전혀였다. 그 어버이에게서 근관들중 벌써 누구-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누구는 사상검호에 엉중하게 걸려 천을 선병처럼 유취
잡 생활을 한다는 것과, 이종리 근관 아즈러니 들은 사상검호
시작되자 집종리가 완전히 뒤끝군 없다고 하였다. 근관아즈
러니들은 전부다 저녁이면 저녁식사를 그려야어디만 먹여 잠지
워놓고 자기들은 논농항아를 정음의면서 자기남프린이 제시간
에 잠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벌써 걱정된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근관
들은 아쉽네 집에서 나볼때에 12번 낮이박작 별안사를
하고 떠나서, 등가방에는 벌써 모의정봉이 세이면 두구와 비반즈 하
하나쯤은 여유로 가리곤 단단다고 하였다. 해마다 사물집은 이런
저런, 새로 생긴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보니 시간은 벌써 저녁
부서기 도의 사람복이 갈취비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내경스러운
인사를 올리였다. 어머니는 알뜰 노서기를 자리는 살남어를 다살았
기때문에 무서울것이 하나 없다고 하면서 최후로 돌려 보냈
다고 하였다.

현을 선생의 사상검토 경형은 쇠날이나 지근이나 한가지로, 인제는
 벌써 25 일여 지난일이로 볼거라곤 계속 없는 폭동준비에 대한 지
 시를 고백하라는 것과 아이들을 소련에 보내야 보낸것은 소련으로 도망
 치려는 것이니, 조선은 앞으로 강한 나라가 될것을 믿지않고 아이들
 을 소련으로 공부하러 보내었으니, 항상 소련을 위대한 나라로만
 보며 그에 모든것을 섬기려는 사대주의자, 우리 조선인민에 대한
 배신자라고 비판하기까지 계속 받았던 재우지않고 심문하는일이
 었다. 현을 선생은 본래 기질이 약한분이였다. 몇년전에 원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권복을 당하여 타박상을 받은
 후 열죽일강이나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그에
 다 지근 사상검토에 들어서면서 유치장 생활에서 큰 열병이나
 식사로 잘하지 못하고 었은형프린에서 그어는날 저녁 8시반어나
 되자 쇠날나 사모님이 자기 남프린 현을선생과 12월회가 유치
 장 독방에서 있었다. 쇠날나 사모님은 세방에서 제일 귀중한
 자기 남프린의 보살것 없이 훌륭하여진 그 열병을 쇠다냈고 눈
 물이 북받치며 열사의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거저를
 기만 하였다. 현 선생의 열지말라고 말 가는 말에 뚫어
 어찌한가 묻고, 소련에 었은 친척들은 모두다 잘있으니,
 아이들도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었다고 간담히 말한다고
 계속 듣고 있었다. 이처에 현을선생은 식사물레는 들레
 로 받았으면 오시간 정도도 재우지 않고 꼬여레로 심문하는일이
 너무나 바빠서 얼마나 죽어야 할날갔다고 하였다. 이말은
 별의 시애끼에게서 평양에 들렸을 때에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 죽어지 않는한 복음이 살아있을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살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말했다.
 그래도다니한 열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죄인이 아닌데 어
 제 자살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꼭참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7군단 사상검토 회의는 발동시켜 놓은 엔진이 돌아가는
 격으로 계속 자기 인력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으나 새롭을 변동이라
 고는 없었다. 거러 며칠 그 말이 장 말이고 그 격이 장 격이었다. 비
 령게 몇몇 일간 끌다가 사상검토 지도원들도 맥이 지나였는지 그
 사상검토회의의 종말을 정을 준비를 하였으나, 기본장봉인을 완전히
 죄없이 석방한다는 것은 사상검토 운동의 완전한 과해를 의미하는 것
 이요, 죄가 없어도 그의 "실노" 를 조건 잡아 출당, 검거, 추복은, 그의 성과를
 미리하기 때문이,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죄를 시켜 놓게 마련이
 었다. 그리나 천물선생에게 죄를 시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
 나였다. 그는 수정과 같이 겸백하였고, 이윽에 대하여 항상 선
 하였고, 위법과 악이라 하는 것은 생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사상검토 지도부는, 나라를 믿지 않고, 당을 믿지 않고, 아이를
 을 노련으로 배내며 보낸 행동은 반당, 배쪽 사대주의 행동임으로
 르듯 당 대열에서 출당 식하고 노련으로 추방하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당 총회는 결심했었다. 사상검토 지도원은 어쩔론이 내
 기전에 유치 천물 선생에게 권고하기를 노련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천물선생을 며칠같이 죽유터 가까이로 끌고 가던
 사상검토 회의는 선생의 생의 종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무
 없는 경우에서 유치장으로 불어 석방하였다. 천물 선생은 집에
 돌아와 부엌 앞에서 주먹으로 상을 치며 울었다. 그것은 25년
 동안 감옥하고 있던 레닌 공산당원이란 정치적 생애가 광
 어렸다고 생각하였어서였다. 그러나 처안나 시로 남은 말
 씬 하기를 - 이제 그까지 당증은 하여서 말하질소, 그만이
 고 생각하고서도 살아 나온 것이 다행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시요, 인
 자하고 같이 유치장 생활하기 시작한 것이 삼기도 어느 때가
 그 풍금을 담기겠는 몰라서 전 체 가족들은 살기가 하나도 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이것으로 끝난 것도

하나님의 덕분인줄 생각하오, 이제 소련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이들이나 늙아 끝까지 공부를 식히고 살릴사리를 취세워주면
그 아이들의 덕분이라도 아무 염여없이 평안이 살수 있소.

이곳이 조국인데, 여기서 살게되지 못하게 되고 부름을 가게 되었
으니 그것이 얼마나 애송한 일어오, 사람이란 산다는 것이 일하
배부르면 다 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에 진출하여 지향과
목적있게 정치적 생활을 하여야 하지 않소? 그런데 언제는
그 당증을 배워왔거니와,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
그러나 나는 다 살았단말이오. 모르겠소 나는 특이 답답하고 앞
이 칸한게 아무생각도 하지 않소.

이 말을 지서히 듣던 처안나 사모님은, 어찌나 연감에 주인
의 마음을 잘알듯싶은 희망을 조금씩씩이면서 환심시키고 언제는
부군단에서는 불상 다 봤는데 속히 평안한에 이사하여 몰로 라가
소련 업국부흥을 위하여 될것을 생각하면서;

- 아이구, 별말씀 다 하시구려, 이제 소련에 귀국하여 가
고 다시 일을 잘하면 북당할수로 있겠지, 아무 근심도 하지
말고 속히 이곳을 뜨게오, 하였다.

몇달이 언지나 현물선생 양국은 얼마간이라도 정든곳,
정든 이웃들을 떨쳐주고 자기근심, 그들에 대한근심을 특이 품
고 떨어지지 않는 거름으로 평안, 시에끼 집으로 출발하였다.
동생의 집에 도착한 현물선생은 병기총극장을 없는 동생을
함께 더러고 귀국할것을 결심하고 동생에게 권고하기를;

- 동생! 내가 반당 종파분자로 출당, 실직, 제대되었의
동생의 앞길도 언제는 가루악한것만 사실이오. 하나 민족보
위상을 찾아가서, 이런조건에서 일할수 없는데 허인, 제대식
혀 달라고 하고, 형님을 따라 소련에 귀국하겠는 최고사령관
게 건의하러 달라는 요청을 드리었다 하여 대하여, 보위상 리
는 그 환경을 알아볼라고 하면서 최고사령관게 건의하겠다고 하

표정양에 울타와 동생의 집에 함께 있는 천을선생의 양쪽은
 볼가 3개월 이내로 귀국하게끔 받았으나, 동생 천어환의 귀국문
 제를 천어환은 재히 동의하고 최고사령관제 건의한다고 하였
 으나 민족보위성 총정치국에서 귀국문제를 잡아 갈고서는 근 반
 년동안 끌면서 비결이 되지 않아서 더할수 없었다. 총정치국
 은 천어환의 불계도 천을의 불계처럼 사상검토 구렁에 다
 차 넣고 확대경으로 그의 문체를 후시하여 보려는 여드에서
 그렇기 되었다. 그러나 천을선생은 여하한 조건에서도 동생은
 꼭 데리고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던 차 1960년 12월에
 다 비결이 나와 쓰련에 귀국하게 되었으나, 조국을 보내는다고
 쓰련에 귀국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전역다 자기 격리로 떠나
 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문제거리가 되었다. 조선에 나올때에
 쓰련 정부로 불어 파견받아 와서 사임하였던바, 1948년에
 전체 쓰련군대 성원들을 철거할때에는 김일성이 조선정부의
 명의로 조선민족 간부들은 백프를 끌 때 뒤돌것을 요구하였기에 쓰
 련 출신 조선족 간부들은 조선^안남아 있게 되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연제와서는 가겠으면 자기편으로 가라고 하니 문제거리였다.
 이것이 김일성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하북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는 일인데, 이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허가는 고사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여비가 없으면 귀국
 허가들은 전부다 취소하여 버리라고 하면, 어찌까지 애쓰
 12이 신고하던 일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것은 변한 일이었다. 김일성
 이란 사람은 동생자기 때문에, 한번 말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어기 때문이다. 그렇다하여 쓰련정부에다 제기할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기한 때문에 위험하였다. 문제 허가 절차를 오래동안 끌고
 가지 못하면 역시 전연민이 "어버이"가 성을 내고 고놈들을 보내고
 말라고 하면 거저 그만일것은 변한 일이었다. 때문에 할수 없
 득 가정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가정들을, 여쭙 어복 내복까지 다

팔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어찌하면 신속히 평양을 떠나도록 하였다.

마침내 천을 선생의 결심대로, 조선에 나갈 때와 같이 각기 동생을 꼭 데리고 한행배로, 애석하나나 경도없던 조선을 등지고 소련,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어 1960년 12월 25일에 도착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두가정은 소련 무력성의 ^{대표} 마중을 받아 가산 명칭 철도역에서 불러 모스크바 중앙 호텔 "로시아" 명칭 호텔에 가족들을 안치하고 1961년을 맞이하는 설까지는 꼭 쉬라고 하였다. 두가정은 1주일동안 모스크바에서 휴식 하면서 조선에서 먼저 귀환하여 모스크바에 자리잡고있는 여러 집들의 초대를 받아 아집저집 다니면서 조선에서 사 상검토시 인간의 맞이와 천대로 가슴속에 깊이 알랑이를 맺 어제한 그 원앙을 좀 구상해하는 감을 받게 되었다. 1961년 1월 4일에야 간부들의 초대를 받아 천선생 형제는 보의성에, 즉 소련 무력성에 가게 되었다. 간단한 신년 연사가 있는 다음 그 날부터 시작하여 무력성 연금생 후속을 하도 한편인 소련 공 산당 조직부를 통하여 타슈켄트에서 사학보장 문제, 복 안의 취직 문제, 아이들의 대학과 공학 등에서 학업 계속문 제와 장학금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은 다음 천석들이 살고 있 는 타슈켄트시로 출발하였다. 타슈켄트에 도착한 천을 선 생은 모스크바에 갔이고본 서류대로, 일결정제 문제, 연금에 대한 문제, 사학, 복원 취직, 아이들의 학업 계속 문제 등을 다 해결받은 다음 천석들까지 다 찾아 보고 집에 돌아와 1961년 하기를 공병으로 일하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 돌아 다니고 여 러 유명한 의사들에게 다 보였으나 공한 병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우르체크 공화국 중앙 종합진료소의 진단에 의하면 위암이라고 하였다. 천선생은 계속 그 병으로 인하여 큰

일련간 종환에 계시다가 1962년 7월 10일에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천을 선생이 이렇게 생기왕성할 중년 시절에 자기 생명을 채 살지 못하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용선히 정직한 선생을 사상검토의 함정에 빠뜨려놓은 인간 이하의 천대로써 그를 대지함으로써 그의 애간장은 다 녹아 내리게 되었으며, 유치장에 갈아넣고 10여달 동안 반기아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게 못한 것이, 그의 기분 언연한 것이다. 천을 선생의 사상검토가 끝나고 이포에서 떠나 평양에 도착하였을지 동생은 형에게 물기를, 형님 유치장에서 형님을 잘 공대하였는 모양이구려, 물어 전혀 풀지 않고 피육이 낫아진 것을 보니, 하느 동생의 말에, 그 령구 말구, 그 땅에서 용지 고기항에 이집에 계란을 떨어뜨리 았았는대 하였다. 이런 농언어 었은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12월 12일에서 불이, 천을 선생의 뉘비가 계속 끌면서 았기 시작한 것이 막 일제 았 지나서야 뉘비가 이전대로 회복되게 되었으나 벌써 정신 어상이 생기는 대로 었고, 발걸음도 제대로 되지 았은 대가 었다고 자신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생사함을 았는것이 김일성이 권위적인 "아버지"가 복한 영민에게 선사한 사상검토다. 그 무기가 애애한 간부들이 12월 12일이나 았터 무대에서 자기 생명을 았는 았는 지 령사는 말할 것이다.

천을 선생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안나 사모님은 국가와 여러 친척들의 방조, 또 자신의 근면성으로 아들 딸 5남 2녀를 전부다 대학을 나오게 하였으며, 모두가 사회에 진출하게 하였다. 그들중에서 큰 처남 천 불라-리미르는 무즈백 공화국 건축성 대리석 골포라 지이안 부기부장 겸 경리부 회장으로 위신있게 일하면서 북한의 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었다.

천을 선생의 장남 천 레보니드 1995. 11. 20.